제14강 형이상학에서 은유로 2

(1교시)

2. 물의 비유－지혜의 원천, 『노자』 8장의 예

[원문과 하상공의 주석]

1 上善若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之所惡, 故幾於道.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으니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해주면서도 다투지 아니하고, 뭇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거의 도에 가깝다.

[河注] 上善之人, 如水之性. 水在天爲霧露, 在地爲泉源也. 衆人惡卑濕垢濁, 水獨靜流居之也. 水性幾於道同.
가장 좋은 사람은 그 성품이 물과 같다. 물은 하늘에 있으면 안개나 이슬이 되고 땅에 있으면 샘이 된다. 뭇 사람들은 낮고 습하며 더럽고 탁한 곳을 싫어하는데 물만이 홀로 고요히 흘러가 거기에 머문다. [이렇게 볼 때] 물의 성품은 거의 도와 같다.

2 居善地, 心善淵, 與善仁, 言善信, 正善治, 事善能, 動善時. 夫唯不爭, 故無尤.

거처하는 것은 땅과 같이 하기를 잘하고 (땅에 잘 머물고) 마음은 연못과 같으며 함께 지내는 것은 어질기를 잘하고 말은 믿음직스러우며 발라서 잘 다스리고 일에 있어서는 능숙하며 움직임에 때를 잘 맞춘다. 오직 싸우지 않으니 그러므로 허물이 없다.

[河注] 水性善喜於地, 草木之上卽流而下, 有似於牝動而下人也. 水心空虛, 淵深淸明. 萬物得水以生, 與虛不與盈也. 水內影照形, 不失其情也. 無有不洗, 淸且平也. 能方能圓, 曲直隨形. 夏散冬凝, 應期而動, 不失天時. 壅之則止, 決之則流, 聽從人也. 水性如是, 故天下無有怨尤水者也.

물의 성질은 땅을 좋아하는데 풀이나 나무 위에 있으면 아래로 흘러내리니 골짜기에서 움직여 사람의 아래로 가는 것과 비슷하다.(암컷과 비슷하여 움직이면 사람의 아래에 있다. 물의 마음은 공허하여 깊고 맑다. 만물은 물을 얻어야 살 수 있는데 허한 것과 더불고 가득 찬 것과 더불지 않는다. 물은 안으로 형체를 비추어 내니 그 실정을 놓치지 않는다. 씻지 않은 것이 없어 맑고도 평탄하다. 네모지게 되기도 하고 둥글게 되기도 하며 굽혔다 폄이 (용기의) 모양을 따른다. 여름에 풀리고 겨울에 어는 것처럼 때에 응해서 움직여 천시를 놓치지 않는다. 막으면 그치고 터주면 흐르니 남의 말을 듣고 따른다. 물의 성질은 이와 같아 천하에 물을 원망하고 허물하는 이는 없

다.

(2교시)

3. 무용(無用)의 철학－□허□(虛)의 역설적 논리와 비유, 『노자』 11장의 예

1 三十輻共一穀, 當其無, 有車之用;
서른 개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머리에 모인다. 그 바퀴머리의 빔에 수레의 쓰임이 있다.

2 埏埴以爲器, 當其無, 有器之用;
찰흙을 빚어 그릇을 만든다. 그 그릇의 빔에 그릇의 쓰임이 있다.

3 鑿戶以爲室, 當其無, 有室之用.
문과 창을 뚫어 방을 만든다. 그 방의 빔에 방의 쓰임이 있다.
*室: 사방이 벽으로 막혀있는 것

4 故有之以爲利, 無之以爲用.
그러므로 있음이 이가 됨은 없음의 쓰임이 있기 때문이다.

* □허□(虛)의 철학: 자연의 자정작용(김형효, 인간의 문명이 비대화되면 자정작용은 사라지고 □實□이 된다.)

[해설]
『莊子』「外物」: 惠子謂莊子曰: □子言无用.□ 莊子曰: □知无用, 而始可與言用矣. 夫地非不廣且大也, 人之所用容足耳. 然則廁足而?之, 致黃泉, 人尙有用乎?□ 惠子曰: □无用.□ 莊子曰: □然則无用之爲用也亦明矣.□
혜시가 장자에게 말했다. □당신의 말은 쓸모가 없습니다.□ 장자가 말하였다. □쓸모 없음을 알아야 비로소 진정한 쓰임에 대해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대지는 정말로 넓고도 큽니다. 하지만 사람이 쓰는 것이란 발이 닿는 아주 자그마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발이 닿는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파버려서 황천에까지 이른다면 사람에게 이 커다란 대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혜자가 말하였다. □쓸모가 없겠지요.□ 장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쓸모 없는 것이 진정한 쓰임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 또한 자명해졌습니다.□

4. 말잇기의 철학, 비유의 □이야기□(寓言)

(1) 도가의 말 잊기의 비전과 신(神)의 언어

통발이란 그것으로 물고기를 잡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면 통발은 잊어야 한다. 올가미란 그것으로 토끼를 잡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토끼를 잡으면 잊어야 한다. 말이란 그것으로 뜻을 전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뜻을 얻었으면 말은 잊어야 한다. 나는 언제나 말을 잊은 사람을 만나 그와 더불어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莊子』 「外物」: 筌者所以在魚, 得魚而忘筌; 蹄者所以在兎, 得兎而忘蹄; 言者所以在意, 得意而忘言. 吾安得夫忘言之人而與之言哉!)

공자가 말하였다. □글은 말을 다 표현하지 못하며, 말은 뜻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성인의 뜻은 알 수 없는 것인가? 공자가 말하였다. □성인은 상을 세워서 그 뜻을 다 드러내었고, 괘를 베풀어 참과 거짓을 다 드러내었다. 또한 거기에 글귀를 달아서 그 말을 다하였고, 변하고 통하게 하여 이로움을 다하며 북치고 춤추어서 신을 다하였다.□ (『周易』 「繫辭傳上」 12: 子曰: □書不盡言, 言不盡意.□ 然則聖人之意其不可見乎? 子曰, □聖人立象以盡意, 設卦以盡情僞, 繫辭焉以盡其言, 變而通之以盡利, 鼓之舞之以盡神.□)

(2) 말잊기에서 비유로

중부(中孚)괘의 구이(九二)에 □그늘에서 학이 우니 그 새끼가 화답한다. 내게 좋은 작록이 있으니 너와 함께 나누리라□고 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가 집에 머물더라도 그 말이 좋으면 천리 밖에서도 응답하니 하물며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집에 머물더라도 그 말이 좋지 않으면 천리 밖에서도 거스르니 하물며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군자의 말은 자신의 몸에서 나오지만 백성에게 퍼져나가고, 행동은 가까운데서 하지만 먼 곳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말과 행동은 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가장 중요한 것 즉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영예와 치욕이 결정된다. 바로 이 말과 행동으로 군자는 하늘과 땅까지도 요동치게 하는 것이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동인(同人)괘의 구오(九五)에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 처음에는 울부짖지만 나중에는 웃는다□라고 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의 도리란 벼슬길에 나아갈 때가 있는가 하면 물러나 집에 있을 때도 있고, 무엇인가 말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침묵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 하면 그 날카로움은 쇠라도 자를 수 있고, 마음을 함께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그 향기가 난초와도 같다□고 하였다. (『周易』 「繫辭傳上」: □鳴鶴在陰, 其子和之, 我有好爵, 吾與爾靡之.□ 子曰, □君子居其室, 出其言善, 則千里之外應之, 況其邇者乎? 居其室, 出其言不善, 則千里之外違之, 況其邇者乎? 言出乎身, 加乎民, 行發乎邇, 見乎遠, 言行, 君子之樞機. 樞機之發, 榮辱之主也, 言行, 君子之所以動天地也, 可不愼乎?□ □同人, 先號?而後笑.□ 子曰, □君子之道,

或出或處, 或?或語. 二人同心, 其利斷金, 同心之言, 其臭如蘭.□)

(3) 무언의 철학, 말잊기의 논리

* 김형효가 추구하는 것: 인간과 자연과의 화해/종교와 종교와의 화해/지식과 삶과의 화해